



鄭 夢 憲 / 現代電子産業(株) 社長·本會 副會長

地球村

業務上 비교적 海外出張이 잦은 本人에게는 요즘 新聞이나 雜誌에 심심찮게 登場하는 「地球村」이라는 말이 꽤나 實感나게 들린다. 물론 「地球村」이란 말도 쓰는 이에 따라 그 內容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말인 즉 人間生活의 舞臺가 國家나 地域單位에서 世界라는 더 큰 舞臺로 擴大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地球村化」現象은 到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 文化나 流行의 同時性, 企業의 多國籍化, 政治的 理念對立의 鈍化, 國家나 地域間의 相互依存性의 增大 등은 世界의 人 現象인 것이다.

1960年代를 휩쓸었던 비트, 히피文化는 高級·低級의 評價를 떠나서 한 時代의 젊은 世代를 代表한 文化였음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열풍은 世界各地에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그들의 思考와 行動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만큼 서로의 理解領域을 넓히는데 공헌했고, 地球마을 現象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었다.

企業의 多國籍化는 政治·社會的으로 複雜한 問題를 일으키는 現象이나, 自由企業理念을 否認하지 않는 限 피할 수 없는 企業活動의 結果이다. 그 동안 企業의 多國籍化는 특히 後進國에서 많은 政治·社會的 問題를 야기

시켜 왔으나 企業의 이러한 活動을 통해 人間의 物質生活과 國際間의 理解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도 事實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빨간 바탕에 하얗게 쓰여진 코카콜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通하는 言語가 되어버린 것이다.

요즘 東西陣營의 對立은 50, 60年代의 理念對立이 아닌 實利差에 對한 對立인 것 같다. 최근 共產圈에서 일고 있는 各分野에서의 變革은 종래의 理念體制 아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離脫인 것이다.

또 1974年 以後 우리가 몇차례 뼈아프게 겪었던 原油파동은 오늘날 世界가 얼마나 서로 相互依存하며 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좋던 싫던 오늘날 世界가 하나의 共同體가 되어 가고 있는 現象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地球村化의 促進의 主役은 누구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現代科學임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地球村은 觀念의 產物이 아니다. 現實世界의 變化에 따른 現象의 認識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交通手段의 눈부신 發達은 人間과 物質의 交流를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하여 주었다. 空港에서 마주치는 수 많은 사람들, 各國에서 모여든 各樣色의 商

品들, 이 모두가 오늘날 交通手段의 발달이 없었던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둘째로, 電子科學의 發達에 따른 급속한 通信 및 情報處理技術의 發達이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世界 어느 곳에서나 電話通話가 可能하고, 서울에서 일어난 事件을 뉴욕에서도 時差없이 알 수 있다. 18世紀 어느 수학자는 원주율 計算에 一生을 바쳤지만, 오늘날 컴퓨터는 불과 몇초 사이에 그보다 훨씬 많은 끝자리 數字까지 정확하게 計算하고 宇宙船의 歸還着水地點까지 計算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科學의 發達은 物理的인 地域間의 거리나 時差의 극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人間生活의 質的 變化가 우리에게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단추 하나로 온 집안을 조절하고 방 안에서 통장없이 銀行去來를 하는 科學의 시대, 科學이 人間을 지배하는 시대에는 日常 人間生活이 人間의 思考活動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그 만큼 同質的인 요소가 많을 터이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地球마을化」는 더 쉬워질 것이다. 부드럽고 친근하게 까치들리는 地球마을이 科學에 의해 지배될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할 代價는 얼마나 될까. 굳이 George Orwell의 「1984年」이나 A. Huxley의 「멋진 新世界」를 이야기하지

“기업의 다국적화는 정치·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나, 자유기업 이념을 부인하지 않는한 피할수 없는 기업 활동의 결과이다. 그 동안 기업의 다국적화는 특히 후진국에서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나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간의 물질생활과 국제간의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않더라도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에 그런 소설들도 쓰여졌고 우리가 세월을 두고 읽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지구마을은 어떤 것일까?

저마다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아마도 共通點을 찾는다면 人間의 尊嚴性 위에 個人의 自由와 創意가 보장되는 그런 마을이 아닌가 싶다. 얼핏 보면 저런

地球마을이란 共同体 概念과 맞지 않는 것 같으나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오늘날 國家社會—마을이라 해도 좋고—도 궁극적으로 追求하는 바가 그와 같다고 할 때 多樣한 國家들로 이루어진 地球마을도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의 單一國家가 갖는 強制力, 單一理念 등의 힘보다 相互理解와 協力이 평

화롭고, 인간적인 地球마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래에도 電子科學은 분명히 地球마을化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電子産業에 종사하는 나로서는 科學이 人間위에 서지 않는 그래서 人間 모두가 個體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인정받는 그러한 地球마을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